

Interview

‘더샵스타시티’에 이어 ‘더클래식500’으로
건국르네상스시대를 이끌고 있는

건국AMC 권상문 회장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더샵스타시티'가 강북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35~58층의 주거시설 4개동과 상업시설 1개동으로 구성된 스타시티는 도심 주거지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을 모두 갖춘 복합생활공간으로 단지내에 백화점, 극장, 대형할인점, 스포츠시설에 이르기까지 문화·편의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다. '더샵스타시티'에 이어 노인 요양시설 '더 클래식 500' 추진으로 건국르네상스시대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건국AMC 권상문 회장의 경영철학과 전략을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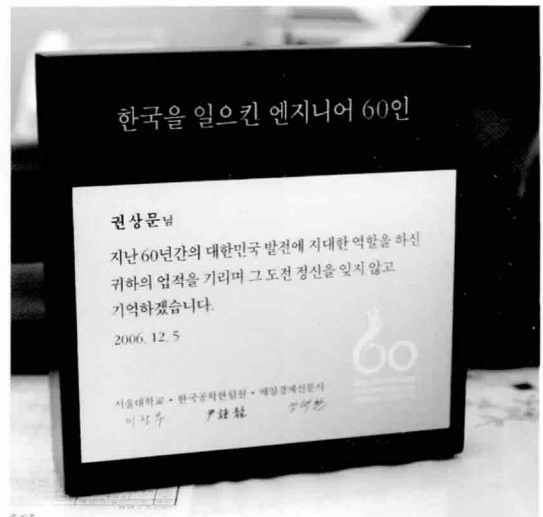
▶ 건국AMC는 설립 초기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강북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으며, 강북발전의 대표적인 모델로 학계와 관련기관의 본보기가 되었고 대학발전의 탄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설립 초기의 궁극적인 목표와 그간의 성과에 만족하는지.

건국AMC는 학교법인의 안정적 수익구조를 바탕으로 대학 지원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2011년 건국대학교를 명문사학 5위로 도약시키겠다는 것이 궁극적 목표입니다.

건국대학교는 건전한 사람들이 만드는 학교입니다. 명문사학으로의 꿈이 큰 만큼 발전의 원동력도 큼니다. 그간의 성과에 아직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야할 길이 멀기 때문이지요.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 공부하고 싶어 하는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재정이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생각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대학이 부러워하는 차별화된 재정 동력을 완성시켰을 때 비로소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얼마 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한 단계 상승했다는 좋은 소식이 있었지요? 중앙일보의 대학평가가 절대적인 것도,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대학간의 경쟁을 제도화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인정받는 점에서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9월 27일 중앙일보가 발표한 2007년 전국대학평가에서 우리대학이 작년보다 한 단계 상승한 13위에 올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엔 수원의 아주대와



○ 한국을 일으킨 엔지니어 60인 상패

공동 14위였으며 올해에는 중앙대, 부산대와 공동 13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종합대학으로는 서울대와 연·고대 등이 수위를 차지했습니다만, 중앙일보는 1면 기사에서 '재단의 적극적인 투자로 건국대 순위가 한 계단 상승했다'고 밝힌 점에 대해 저로서는 뿌듯함에 앞서 더욱 좋은 결실을 맺도록 전념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5대 사학이라는 건국르네상스와 드림건국의 목표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 권상문 회장께서는 건국대 변신의 최 일선에서 진두지휘하시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난 2006년 서울대학교와 한국공학한림원, 매일경제가 선정한 한국을 빛낸 엔지니어 60인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심사하는데 만 1년이 소요됐다는 이 상은 1950년대 탄광

산업에서부터 2000년대 IT산업에 이르기까지 땀 흘리며 기술을 개발해 대한민국의 산업부흥을 이끈 주인공에게 수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 건설부문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것은 권상문 회장의 업적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능력이 뛰어났다고 하기보다는 건설에 40년 한 우물을 팠다는 경력 때문에 제게 수상의 영광이 온 것이겠지요.

69년 현대건설에서 시작된 저의 건설인생은 아직도 진행 중이니 말이지요.

지금 제가 경영하고 있는 건국AMC는 다소 성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건설 분야 경력이 큰 밑거름이 된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또한, '더샵스타시티'에 이은 프로젝트 'THE CLASSIC 500'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요즘도 69년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의 정신자세를 잃지 않으려 다짐하곤 합니다.



▶ 건국AMC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사장께 세 가지를 약속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조직으로서 의사결정권을 줄 것, 모든 금전적 거래에서 나를 배제 시킬 것, 오직 스타시티에만 전념할 조직을 구성토록 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철두철미한 성품이 스타시티 사업의 성공 비결이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건국대학교 김경희 이사장님과는 매사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편입니다. 특히 미적 감각에 조예가 깊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구요. 강북개발의 일환 중 민간 주도로는 최초인 스타시티가 사무공간과 주거 공간 분리에 따른 혼란 등의 부작용 없이 생활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복합화를 추진해 성공한 원동력도 이사장님의 창의력과 결단력 강력한 추진력에 그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 분양중인 'THE CLASSIC 500'은 현재 시니어를 위한 최고급 최첨단 노인요양시설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병원과 골프장, 온천 개발과 연계된 실버타운으로 은퇴 후 삶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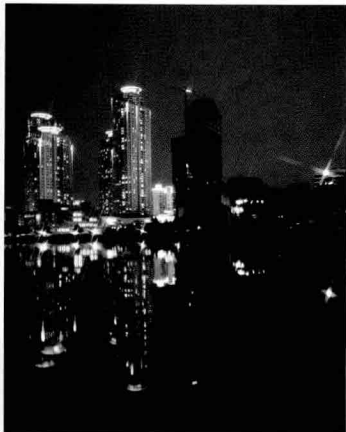
'더 클래식 500'은 고층 주상복합의 최고급 공간에서 프리미어 헬스케어를 받으며 로하스를 지향하는 YO(Young Old)세대를 위한 기획된 삶의 공간입니다. 기존의 단순 요양 개념의 시니어타운을 탈피, 99세까지 88(팔팔)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는 물론 운동, 여행, 문화생활 등 다양한 은퇴 후 삶을 보장함으로써 활기찬 노후를 책임지는 맞춤 건강 구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국대학교 병원과 연계된 최첨단, 최고급 메디컬서비스로 전담 주치의와 간호사가 편성되어 1:1 개인맞춤 건강 상담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건강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 'THE CLASSIC 500'을 개발하던 중에 온천수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온천수 발견을 예상하신 건가요? 아니면, 우연히 발견된 것이지요.

광진구에는 온천수가 발견된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치밀하게 조사해오던 차에 수맥에 정통한 분께 부탁해 첫 시추와 동시에 온



- ① '스타시티'에 조성된 각종 조형물
- ② '스타시티' 야경
- ③ 건설중인 '더 클래식 500' 야경





○ 대담중인 최재천 명예회장, 권상문 회장, 한경보 회장(좌로부터)

천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강알칼리에 유황성분이 있는 아주 높은 가치의 온천수로 온천 의학 효능 연구계 대가인 아기시 유코 박사와 동경 중앙 온천 연구소의 분석결과 다양한 미네랄 성분과 알칼리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그 가치가 배가되고 있습니다. 양질의 온천수를 메디컬 스파와 대중 스파에 공급하게 됨으로서 자연히 다른 곳과 차별화 될 수 있는 명실 공히 최고의 요양시설의 요소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 'THE CLASSIC 500'의 또 다른 특권으로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골프회원 서비스와 고품격 호텔 서비스로 문화, 예술적 친목도모와 창조적 커뮤니티 활동에도 기여함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THE CLASSIC 500'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 예술적 친목도모와 창조적 커뮤니티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며, 유기농 영양식으로 개인별 맞춤식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 2회 하우스키핑 서비스, 개별 환기 시스템으로 온도와 습도 자동 조절 등과 같은 6성급 호텔의 고품격 서비스로 삶의 여유도 제공 받게 됩니다.

▶ 대단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두지휘 하고 있는 분으로서, 건국르네상스를 이끌어나가는 수장으로서의 각오도 남다를 텐데요.

학교법인 각 기관들의 기능적·유기적 연결고리를 통해 최고의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준비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 중 이러한 청사진 하나하나씩을 구체화·현실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멀티 플레이어 정신으로 무장한 유능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국AMC는 슬림화된 구성으로, 날렵하면서도 신중한 몸놀림으로 그 위력을 계속 떨쳐 나아갈 것입니다.

▶ 처음부터 모든 수입을 학교 법인에 맡길 것을 제안하였고 스타시티 사업에만 매진하며 이를 통해



◎ 스타시티 앞에 선 권상문 회장과 한경보 회장

얻은 재원을 학교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를 고민한 건국AMC, 건국인에겐 이미 익숙하고 힘을 얻는 의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건국인들이 세계로 그 꿈을 펼쳐 나아가기 위한 재정적 원동력이고 자 하는 건국AMC의 노력은 훗날 큰 별로 떠오를 것입니다. 스타시티처럼 ...

향후에도 건국인을 넘어 대한민국 모든 이의 가슴에 찬란히 빛나는 별과 같은 작품을 만든다는 각오와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귀한 지면을 할애 주심에 감사드리며,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안전 전문기관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촬영/정리 • Willy 기자

더 클래식 500은 2009년 3월 입주예정인 '원금보장형 임대상품'을 특징으로 하는 5년짜리 전세형 임대주택이다. 입주자가 원하면 5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며, 임대주택이지만 투자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과 함께 계약기간 동안의 집값 상승분 가운데 50% 이상을 별도로 지급한다. 즉, 입주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이 없으면서도 투자가 가능한 국내최초의 상품인 것이다.

더 클래식 500은 2009년 3월 입주하는 40층과 50층짜리 2개동으로 185~195㎡(56~59평)형 450가구로 구성되는 도심 속 고품격 주거단지로 임대보증금은 플래티넘, 골드, 클래식 등 세 등급으로 구분돼 10억~16억 원 선으로 책정된다. 각 세대마다 침대, 소파, 불박이장,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기본적인 가구는 물론 와인냉장고까지 갖춰져 계약자가 별다른 준비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특히 가장 비싼 플래티넘급은 파주 스타밸리 27홀 골프장 회원권, 호텔식 청소, 세탁대행서비스, 스파 및 휘트니스 회원권 등 특별서비스가 제공된다. 롯데백화점이 옆 동에 들어서며 지하철 2·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이 단지 바로 앞에 있어 편리함을 더했다.